아마겟돈에 집결하는 벌거숭이 군단

(계16:10~21)

12.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마겟돈에 집결하는 벌거숭이 군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목은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 연결된 제목입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대접재앙은 3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 나타난 일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았고 그렇게 하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
짐승의 나라는 13장에 바다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짐승이 붉은 용 사탄에게 권좌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권좌라는 게 통치가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바다짐승의 통치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완이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게 이상합니다.
요한1서에 보면, 원래 이 짐승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1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사탄의 나라도 또 빛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두워진다는 것은 밝음을 전제로 한 얘기 아닙니까?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에서 다섯 번째 재앙은 밝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빛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에 빛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빛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기는 첫 번째 재앙 때에 나타난 것 아니었습니까?
끝없는 악하고 독한 가려움증, 그것은 곧 저주받은 지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이 단 한순간도 편한 순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종기로 표현되었어요.
그 저주받은 지금과 연관돼서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마는, 여기서 어두워졌다, 빛이 제거되었다고 할 때 짐승의 나라의 빛이라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희망을 느끼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과 아프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먼저, 짐승의 나라에서 666표를 받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의 핵심능력이 뭐냐 하면, 희망입니다, 희망. 가짜 희망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나라에서 희망은 뭐죠?
바다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수면 위에 우리 마음이 머물면서 바람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수면 위를 걷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점점 더 바다 속 깊이로 들어가게 하는데, 바다 속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가장 우월한 지배적 형태가 바로 희망입니다.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게 뭐죠?

이 세상으로 깊이깊이 빠지는 겁니다. 영어에서 falling in love with…라고 하잖아요, with …, …과의 사랑에 빠진다.
세상과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데, 세상과의 사랑에 깊이깊이 빠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땅의 짐승이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바다 속의 삶이 빠져있는 것이고 가라앉아 있는 것인데, 그걸 속여서 사람들 마음이 그걸 바다 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으로 느끼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음에서도 이 세상의 삶을 땅이라고 느끼니까, 이제 희망은 앞에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다짐승에서는 희망이 깊이 있는 게 됐어요, 근데 그 깊이는 항상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꿔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위험하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수평으로 바꿔놓아 버린 거예요, 바다 속의 삶을 땅이라고 속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미래를 앞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바라보는 이 미래의 희망이 갖는 효과가 뭡니까?
지금이 무척 괴롭거든요, 돈이 없어서 괴롭고, 몸이 아파서 괴롭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괴롭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밑바닥에서 구르고 있어서 괴롭고…
그런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 희망이 지금의 고통에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언젠가 크루즈 여행을 할 형편이 되겠지, 이렇게 마취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짜 희망을 가질 수도 없게끔 그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버리십니다.
이처럼 마취제가 없어지니까 마취하지 않고 수술 칼을 갖다 대면 어떻겠어요? 아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픈 것과 종기라고 했어요.
종기는 저주받은 지금인데, 그동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진통제와 마취제 역할을 해서 지금의 괴로움이 덜했었는데, 마음에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게끔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666 표를 받지 않고 어린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위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붙잡을 수만 있게끔 위에 계십니다.
앞에서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붙잡음으로써 지금 행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래, 위에서부터 오는 미래를 사는 것이지, 앞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전에는 없습니다.
땅 짐승이 만들어놓은 속임수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실 때에 가짜 희망이 없어지면서, 지금의 종기, 저주받은 지금이 극도로 아픈 상황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대접을 쏟으시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쏟으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버림받은 자의 위치에서 조금도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디다가 대접을 쏟느냐 하면 유브라데 강에 쏟아버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유브라데 강이 어떤 뜻이라고 했지요?
선민의 나라가 팔레스틴 중심으로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동쪽과 북쪽의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근데 특별히 동쪽 방향에서는 메대, 바사,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났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 선민이 망하게 됩니다.
선민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내용이 성전중심의 삶이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을 깡그리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선민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선민에 대한 대적의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서 나오지만, 어쨌든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 그렇게 경계를 이루고, 항상 망하게 하려는 대적이 있는 곳이 유브라데 강 동쪽인데, 그 강이 말라붙으면서 그 동쪽에 있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쪽에 있던 적들만 오는 게 아니고, 붉은 용과 바다짐승 그리고 땅 짐승,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거짓 영이 나와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왕들을 다 모아서 아마겟돈에 집결을 시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좀 우습지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전능하신 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지도 않을 전쟁인데,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구리 같은 거짓 영들이 나와서 온 천지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으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실제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대접들을 실제로 현실 속에서 생태계와 자연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을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를 굳이 찾아내려고 애를 애를 씁니다. 근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므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므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했을 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제3차 대전이 중동 땅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역사의 지평에서 일어날 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마겟돈에 개구리 같은 거짓 영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모을 수 있는 왕과 군대들이 남아있었겠습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과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태양이 가까이 와서 온 사람들을 다 지글지글 태워죽이고 그랬는데 여기에 모일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실질적으로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런 재난은 계속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세계3차 대전을 의미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정말 뜬금없이 15절에 보면 전혀 맥락과 이어지지 않는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옷을 벗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보내어짐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고 너는 무엇을 해라, 너는 나에게 누구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신분 갖고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일시적인 신분이고 2차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가릴 수 있는 신분의 옷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겟돈에 모이는 모든 군인 하나하나가 벌거숭이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 옛날에 냉전시대 때 이 세상이 미국 편 소련 편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 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땅을 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일곱 인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담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둔 자들 중에서 쏟아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련 편이냐 미국 편이냐 하는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옷을 입은 자들이고, 한쪽 부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신분이 없이 벌거숭이들로 살아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아마겟돈이라는 게 므깃도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므깃도의 산이라는 뜻인데, 므깃도는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 속에서 200회 이상의 전쟁이 일어난 아주 상징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 모였다는 것은 대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대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적이 된다는 뜻이고, 이 싸움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맞추어서 진행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군집하는 벌거숭이 군인 중에 한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신분을 얻어서 옷을 입고 있는 자냐.
내 가족이라도 벌거숭이 군단에 속한 자가 있고, 일본 사람 이북에 있는 사람이라도 옷을 입고 있는 진정한 나의 형제자매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혈육상의 가족관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딱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가 대접을 쏟음과 함께 쏟아진 벌거숭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직된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신분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신분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양의 노래를 늘 부르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현실에 처해서 마음이 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벌거숭이 군단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대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바벨론이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세 갈래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일곱 번째 대접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벨론은 말씀드린 대로 세속문명을 화려하고 찬란하게 꽃피운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있었던 인간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세속문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제가 언젠가 KBS 방송국 신우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데, 온 세상 요즘 젊은이들의 꿈의 장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무릉도원이 방송국 아닙니까?
방송국에 와서 TV에 나오고 스타 되고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는 것, 그런 스타들이 있고 그런 스타들을 촬영하는 스탭, 뉴스 진행하는 앵커 등… 그렇게 화려하게 큰 방송국이 돌아가는 가운데, 단 한순간도 그 방송 내용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고백, 그럼으로써 가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문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라는 얘깁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 세속적인 문명의 화려한 꽃핌, 이걸 다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도착해서 바벨론의 도시를 바라본 히브리 촌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도 바벨론의 흔적,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정비된 모습, 도시의 규모,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이걸 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사막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수려한 도시가 웅장하게 서있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 포로들이 다 기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세속문명을 건설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장소인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이 대접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의 14장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까?
천하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이끌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세속문명이 화려하게 꽃핀 곳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드림을 가져요.
예를 들어 아메리칸 드림, 요새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로 와요,
우리나라에서 받는 돈 80만원 100만원이 자기 나라로 보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코리안 드림을 안고 또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속문명이 발전된 나라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깊이 나도 저 세속문명의 발전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어!'라고 미혹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제 어린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화려한 바벨론과 같은 세속문명의 찬란한 번영,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들에게 바벨론의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이게 바로 큰 지진이 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며 살았고 그래서 사도바울을 골로새서에서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나의 번영과 성공과 기업은 하늘에 있다.
이게 바로 어린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들의 삶이고, 이런 자들이 세속문명을 구가하면서 세속문명의 화려함 속에서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거짓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에 모인 벌거숭이 군단들을 누가 모읍니까?
붉은 용과 바다짐승과 땅의 짐승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거짓 영들이 모읍니다.
거짓 영들이 어떻게 아마겟돈에 모읍니까? 기적을 통해서 모읍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해서만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참 의미는 뭐냐 하면 기적을 행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거짓 영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전하는 바람에 온 세계 왕들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진짜인줄 알고 믿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는 게 성공이다, 이 땅 위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린양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목사님들이 원하는 몇 백억 짜리 몇 천억 짜리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마음 뺏기는 일인지 안다는 겁니다.
삐까번쩍한 예배당을 세우지 못해 안달하는 바벨론 성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벌거숭이 군단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하루 종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미래도 위에서부터 내려옴을 기억하게 하시며, 특별히 벌거숭이 군단에 속하지 않음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늘 동행함으로써 이 관계에서 주어지는 신분의 옷을 입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